



제102장 타카쑤르

메카에서 계시된 8절로 인간이 죽어 무덤에 묻힐 때까지 재물과 자손과 권력에 탐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세를 준비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경고로써 이들은 부활의 날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인하여 분명한 응벌 즉 불지옥을 스스로 목격하게 되며 이날 그들 모두는 그들이 현세에서 탐닉했던 모든 것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계산되어 그에 따른 보상과 응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축적한 것들이 너희를 벗어나게 하리니에서 언급된 「타카쑤르」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102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축적한 것들이 너희를 벗어나
게 하리니¹⁾

2. 너희가 무덤으로 갈 때 까지
오만하여 하느뇨¹⁾

3. 그러나 너희는 곧 알게 되리
라

4. 실로 너희는 곧 알게 되리라

5. 너희가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너희는 알게 되리니

6. 너희는 지옥의 불을 볼 것인
라

7. 실로 너희는 분명히 눈으로서
목격할 것이라

8. 그런 후 너희는 너희가 탐닉
했던 향락에 관하여 힐문을 받을
것이라

شُورٰكُ الْجَنَّاتُ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الْهُكْمُ لِلّٰهِ الرَّحِيْمِ

حَتَّىٰ زُرْتُمُ الْمَقَابِرَ

كَلَّا سَوْفَ تَعْلَمُونَ

لَا كَلَّا سَوْفَ تَعْلَمُونَ

كَلَّا لَوْلَمْ تَعْلَمُونَ عَلَمَ الْيَقِيْنِ

لَكُوْنُ الْجَنَّةِ

لَا لَرُوْنَهَا عَنِ الْيَقِيْنِ

لَا لَسْلَانَ يُؤْمِنُ بِعَنِ التَّعْلِيْمِ

1-1) 일하 : 향락과 오락으로 인하여 아주 중요한 것으로부터 외면하는 것이 언어적인 의미로, 본 절의 교훈은 재물과 자손들과 군대로 거만하고 오만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내세를 위한 준비를 외면한 인간들에 대한 경고로 본다.

2-1) 죽어 무덤에 묻힐 때 까지 재물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내세를 부정하려 하는가?(타프씨르 알꾸르두비)